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4년 쌀 적정 생산 추진 결의대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2일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24년 적정생산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쌀 적정 생산 사업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쌀 공급이 과잉되고, 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체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을 942ha 줄이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는 542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전라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을 추진하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모두 5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보리축제 준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제21회 청보리축제를 앞두고 최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철태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및 유관기관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 기간 중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 행사장 질서, 관람객 동선 및 무대 안전관리, 기간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에 논의했다. 군은 남은 기간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축제장 준비 완료 후에는 민관합동의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세밀하고 누수 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문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철태 고창부군수는 "벚꽃 축제에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가예산 부처단계 선제 대응

권익현 부안군수, 군민체감형 국가예산 발굴·중앙부처 일제출장 실시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 출장을 지시하는 등 부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5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달부터 내달까지는 부처 예산편성 시기로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이 필요하다"며 "부처의 의

견을 빠르게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중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지난달부터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일제 출장에 나서 국가예산 신규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 반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 군이 부처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계 유형원 기념관건립(100억원),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286억원), 격포 여객선 터미널 대체 건립(100억원), 위도 깊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70억원), 우부 고흥연료화시설 설치사업(356억원) 등이다. 권익현 군수는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 유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예산 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심덕섭 군수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박현규)가 1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가 1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행사는 '함께가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하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국민의례,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규 고창군 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사를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화합하며 행복하고 활력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주택·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 주차장 조성

총 사업비 25억 투입

정읍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예정된 수성동, 연지동 인근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시는 총 사업비 25억을 투입해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총 면적 1603㎡, 주차면

수 약 56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총 면적 376㎡, 주차면수 약 12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중앙 3길 인근에 조성해 올해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동 영무예마루 앞(주차면수 51면), 부영 2차 후문 앞(주차면수 20면) 부지를 임대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장기주차 등으로 불편이 많은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

해 무료로 운영해 민소거리 공영주차장,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고, 이후에도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도로변 불법 주차를 해소시키겠다"며 "주차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이버고창군민 봄맞이 이벤트

고창군, 5월 14일까지 한달간 200명 추천 모바일상품권 증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사이버고창군민'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간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사이버고창군민이 되고 싶은 누구나 간편하게 사이버고창군민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사이버고창군민 초대해 봄'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 후 홈페이지 이벤트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선분한다.

'사이버고창군민 혜택 누리 봄 이벤트'는 사이버고창군민 가맹점 중 한 곳을 이용한 후 이벤트게시판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하여 5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선분한다.

사이버고창군민이란 간편한 사이버고

창군민의 권리를 가지며 고창군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사이버고창군민이 되면 사이버고창군민의 가맹점에 한하여 일정금액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정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하농민 먹거리 체험교실, 만돌·하전·장호 이촌체험마을 등 고창군에서 인기있는 체험시설 뿐만 아니라 음식점, 카페 등 신규 가맹점 체결으로 가맹점이 총 23개로 확대되어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사이버고창군민과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양하고 참신한 혜택으로 사이버고창군민 가입과 함께 고창 방문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벤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석진 기자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내 '구절초 지방정원 쉼터'이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쉼터 23일 개장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내 산림 레포츠시설인 '구절초 지방정원 쉼터'가 오는 23일 개장한다.

'구절초 지방정원 쉼터'는 부치봉 정상에서 출발해 숲속 아래 구절초정원과 추령천이 흐르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5월 개장한 구절초 쉼터는 2211(L=550m, 경사율 9.9%)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1만 1000여명이 하늘에서 정원의 경치를 만끽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다.(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요금은 성인 기준 정읍시민 7000원, 관외지는 9000원이며, 우천 등 기상

상태에 따른 정상 운영 여부는 전화(☎010-9521-569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쉼터가 개장에 맞춰 구절초 지방정원 사계절 관광의 일환으로 정원 내 포토존을 조성하고 초화류 식재로 봄철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개장 이벤트로 쉼터 힐링 테마관 방문하면 구절초차 무료 시음을 제공하고, 족욕 이용료를 50% 할인해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이학수 시장은 "봄을 맞아 새롭게 정비한 후 개장했다"며 "앞으로도 구절초지방정원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계절 찾는 정원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